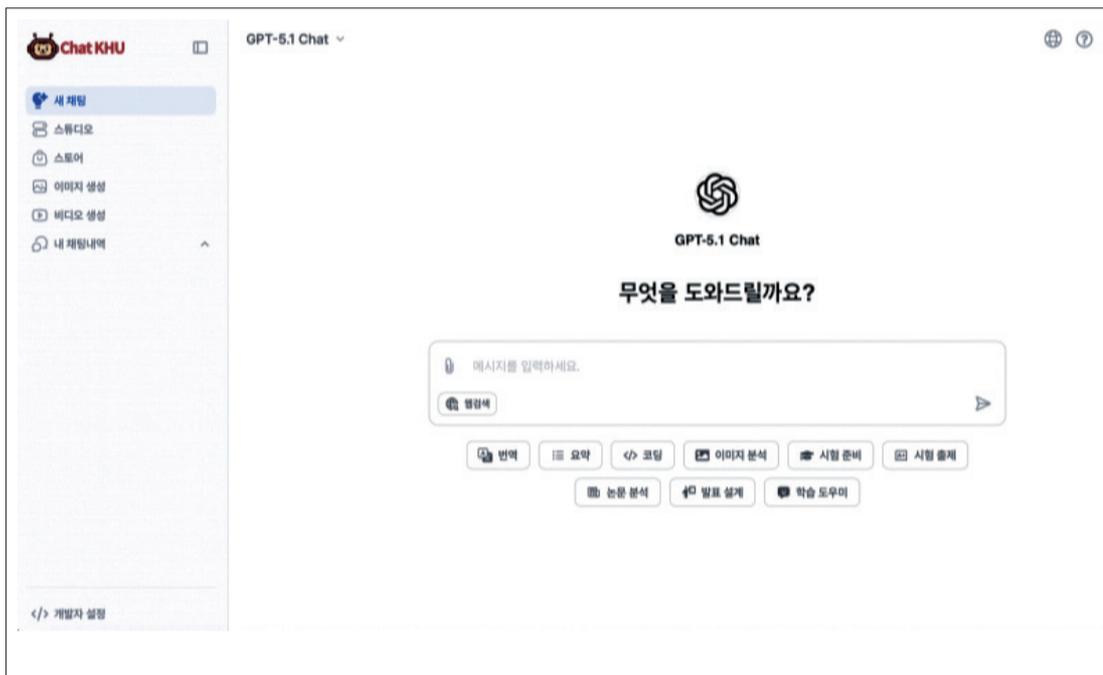


# 생성형 AI 플랫폼 'ChatKHU' 오픈 “교내 데이터 보호가 핵심”



챗쿠 로그인 시 기본 설정 모델은 GPT-5.1 Chat이며, 사용 목적에 따라 다른 모델로 변경해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사진=ChatKHU 화면 캡처)

이은서 기자 silverwest2002@khu.ac.kr

DX추진단이 교내 전용 생성형 AI 플랫폼 'ChatKHU(챗쿠)'를 정식 오픈한다. 학생들은 오는 1학기부터 사용 가능하다. 챗쿠는 최신 생성형 AI를 대학 구성원이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된 우리학교 전용 통합 AI 플랫폼이다.

현재 ChatGPT, Gemini 등 다양한 생성형 AI 서비스가 상용화됨에 따라 외부에서 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있지만, 별도의 전용 플랫폼을 구축해 보안성과 운영 효율성을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DX추진단 심성원 과장은 “챗쿠는 단순히 외부 AI 서비스를 모아 둔 포털이 아니라, 우리학교 환경에 최적화된 보안·비용·운영 효율을 갖춘 통합 AI 플랫폼”이라고 전했다.

기존 상용 생성형 AI 서비스와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별점으로는 보안성이 꼽힌다. 심 과장은 “민감한 정보, 미공개 연구자료, 행정정보 등 교내 데이터 보호가 핵심”이라고 밝혔다. 또한 토큰 풀(Token Pool) 방식을 적용해 개별 유료 구독보다 낮은 비용 구조로 최신 대형 언어모델(LLM)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언급했다. 토큰 풀 방식은 AI 모델 사용 시 발생하는 연산 비용을 '토큰' 단위로 계산해 하나의 공용 자원처럼 운영하는

구조로, 사용한 만큼만 비용이 차감되는 방식이다. 아울러 OpenAI, Google, Anthropic 등 다양한 최신 모델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역시 특징이다.

챗쿠 로그인 시 기본 설정 모델은 GPT-5.1 Chat이며, 사용 목적에 따라 다른 모델로 변경해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모델에 따라 성능과 특성이 달라 작업 목적에 맞춰 선택할 수 있다.

챗쿠는 '크레딧' 방식을 통해 사용량을 관리한다. 학부 재학생에게는 매월 2,000크레딧, 교직원에게는 5,000크레딧이 제공되며, 크레딧은 매월 초기화된다. 크레딧은 실제 금액이 아닌 AI 사용량을 관리하기 위한 내부 단위다. 질문을 많이 하거나 길고 복잡한 요청을 할수록 더 많은 크레딧이 차감된다. 또한 사용하는 모델에 따라 차감되는 양이 달라지며, 고성능 모델일수록 더 많은 크레딧이 필요하다.

심 과장은 “기본 제공 크레딧은 사업 예산과 구성원 규모를 고려해 설정한 운영 범위”라며 “정식 오픈 후 약 3개월간 실제 사용 데이터를 모니터링한 뒤, 적정 수준을 재검토하고 필요 시 단계적 확대도 고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크레딧을 모두 소진할 경우 1,000원당 550 크레딧 단위로 추가 구매가 가능하며, 일부 무료 모델은 크레딧과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다.

챗쿠는 교내 문서를 활용한 기능도 제공한다. 매뉴얼, 규정, 강의자

료 등을 업로드해 이를 바탕으로 답변하는 RAG(검색증강생성) 기반 챗봇을 제작할 수 있다. 코딩 없이 챗봇을 만들 수 있는 '스튜디오' 기능과 제작한 챗봇을 공유하는 기능도 함께 제공돼 연구 지원과 행정 업무 효율화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성형 AI 활용 확대에 따른 윤리 및 보안 지침도 마련했다. 개인정보, 민감정보, 외부 공개가 제한된 문서의 입력은 금지되며, AI가 생성한 결과는 참고자료로 활용되 반드시 정확성을 검토한 뒤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심 과장은 이번 도입이 단순한 기술 인프라 확충을 넘어 대학의 디지털 전환 전략과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학교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교육·연구·행정을 혁신하는 DX(Digital Transformation)를 추진하고 있다”며 “ChatKHU는 구성원 누구나 동일한 기준의 AI 환경에 접근하도록 하는 기반 인프라”라고 밝혔다. 이어 “수업 설계, 학습 지원, 연구 생산성 향상, 행정 효율화 등 다양한 혁신을 안전하게 실험하고 검증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ChatKHU 도입 과정은 책임 있는 AI 활용과 학문적 진실성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표절·대필 방지,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처리와 저작권, 사고 대응 등 AI 거버넌스 체계를 정립하고 고도화하는 실증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학교 공식 홈페이지 AI 기반 플랫폼 도입 2027학년도 공개

김예찬 기자 yechan@khu.ac.kr

우리학교가 국·영문 메인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고 인공지능(AI) 기반 플랫폼을 도입한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디자인 변경을 넘어 각급 단위 홈페이지를 통합 관리하고,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약 1년 간의 제작 기간을 거친 뒤, 2027학년도 1학기 공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사업에는 대표 홈페이지와 웹진을 포함해 총 18개의 주요 홈페이지 및 시스템이 대상에 포함된다. 경영대학원, 평화복지대학원, 전자정보대학, 소프트웨어융합대학 등 주요 단위 홈페이지가 개편 범위에 들어가며, 경희융합연구소와 인문사회과학 데이터 연구소 홈페이지도 함께 고도화될 예정이다.

또한 시스템은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재구축되며, 관리자가 별도의 코딩 지식 없이 콘텐츠를 수정·관리할 수 있는 콘텐츠 관리 시스템(CMS)이 도입된다. 이를 통해 과편화돼 있던 각 단위 홈페이지의 메뉴 구성과 정보 구조를 대학 표준 가이드라인에 맞춰 통합 관리하고, 학과·부서 담당자가 공지 사항·갤러리·배너 등을 직접 업데이트할 수 있는 환경도 구축된다.

올해 상반기에는 기존 홈페이지를 분석하고 새 시스템을 설계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개발과 데이터 이관, 테스트를 진행한다. 커뮤니케이션센터 박승훈 과장은 “단과대학·대학원·부서 홈페이지는 개발이 완료되는 순으로 공개된다”며 전체 서비스는 안정화 과정을 거쳐 2027학년도 1학기 개강 전 오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경희 AI Agent Hub' 구축이다. 박 과장은 “경희 AI Agent Hub'는 생성형 AI(sLLM)를 기반으로 한 대학 전용 지능형 서비스 검증 플랫폼”이라고 밝혔다. 별도의 사이트로 구축되는 해당 플랫폼은 대표 홈페이지와 연계해 ▲다국어 지원

▲콘텐츠 요약 ▲업무 보조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다만 성적 조회나 수강신청 등 학사·행정 시스템과 직접 연결되진 않으며, 홈페이지 내 공지 사항과 게시 정보를 중심으로 운영한다.

다국어 홈페이지 운영 방식에도 변화가 생긴다. 이용자는 게시물 화면에서 다국어 번역과 콘텐츠 요약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특정 게시물에 대해 번역이나 요약이 한 차례 수행되면 그 결과를 시스템에 저장하고, 이후 동일한 요청이 있을 경우 저장된 결과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올해 서비스 검증 단계에서는 자체 AI 모델과 외부 번역 솔루션 간 성능을 비교해 우리학교 환경에 적합한 모델을 확정할 계획이다.

박 과장은 “2026년에는 전면 도입에 앞서 기술 성능을 비교·검증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라며 “이용자가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번역과 요약 기능을 중심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공지사항과 뉴스 등 방대한 콘텐츠에는 AI 기반 번역을 병행하며, 해당 번역이 공식 번역이 아님을 별도로 안내한다. 다만, 입학·학술 안내 등 정확성이 중요한 정보는 기존처럼 전문 인력이 번역한 공식 영문 페이지로 제공한다.

교수 정보 분석 플랫폼도 함께 구축된다. 박 과장은 “기존 단과대학 교수 소개란의 단순한 인적 사항 전달을 넘어, 교수의 연구 성과와 각종 지표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중심 분석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존의 정적인 텍스트 위주 교수 소개에서 벗어나, 지표 기반 분석과 시각화를 통해 논문 실적, 연구 분야, 성과 등 교수의 연구 역량을 대내외에 효과적으로 알리고 학문적 성취를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 과장은 “이번 사업은 단순한 화면 개편이 아니라 대학 디지털 환경을 정비하는 작업”이라며 “사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찾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